

# 세계 주류시장 동향 ②

## - 증류주(Spirits)

주류 1팀



2006년 세계 증류주 시장은 프리미엄 보드카 등 고급 증류주(Premium Spirits)의 판매호조로 활기를 띠었으며, 그 여세는 200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Spirits)는 보드카이며 한국의 소주, 럼, 스카치위스키, 진 등이 상위에 랭크되었다. 한국의 소주, 일본의 소주(sōchu), 브라질산 럼인 카사카(Cachaça) 등의 판매량은 상위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총 매출 순위에서는 상위에 들지 못했다.

### 2006년도 세계 증류주 판매현황

총 매출 기준으로는 디아지오(Diageo)가 증류주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며(총 매출: 약 140억 달러), 페르노리카(Pernod Ricard)가 8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주류산업 전문 잡지인 'IMPACT' 지가 2006년 총 매출을 기준으로 상위에 랭크된 100개 증류주 제품을 선정하였는데, 1위는 약 40억 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린 디아지오의 '죠니 워커(Johnnie Walker)'가 차지하였다. 죠니워커는 같은 회사제품인 '스미노프

순위	제조사 [Company]	총 매출 [Retail Value]	판매량 [Sales Volume]	
			백만 달러	백만 달러
1	Diageo	13,995	77.0	
2	Pernod Ricard	8,500	45.4	
3	Bacardi	4,735	30.6	
4	Brown-Forman	2,925	15.7	
5	Beam Global	2,425	14.1	
6	Moët-Hennessy	2,375	4.2	
7	The UB Group	2,150	37.6	
8	V&S Group	1,920	9.8	
9	William Grant & Sons	1,545	5.2	
10	Remy Cointreau	1,300	3.1	
11	Soyuzplodimport	1,090	14.0	
12	Jinro	1,015	67.8	

(Smirnoff) 보드카나 세계 랭킹 위 기업인 바카디사의 바카디(Bacardi)에 판매량에서는 뒤쳐졌지만 총 매출액 순위에서는 1위에 올랐다. (주)진로의 진로소주협이(眞)는 단일제품 판매량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며, 총 매출 기준으로는 16위에 올랐다.

주종별로 살펴보면 '죠니 워커', '시바스리갈(Chivas Regal)', '발렌타인(Ballantine's), J&B' 등 스카치위스

키가 가장 높은 매출실적을 거두었으며, '스미노프', '엡솔루트(Absolut)', '스톨리치나야(Stolichnaya)' 등이 높은 판매실적을 보인 보드카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브랜디와 런이 각각 3, 4위에 올랐으며 리큐르, 진, 데킬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06년 종류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꼽으라면 바로

#### 2006년도 종류주 제품별 판매현황

단위 : 백만달러 / 백만상자

순위	제품명	제조사	주종	총 매출	판매량
1	JOHNIE WALKER	Diageo	Scotch Whisky	3,990	14.0
2	SMIRNOFF	Diageo	Vodka	2,540	22.9
3	HENNESSY	Moet-Hennessy	Cognac	2,275	4.2
4	BACARDI	Bacardi	Rum	2,145	19.3
5	ABSOLUT	V&S Group	Vodka	1,920	9.8
6	JACK DANIEL'S	Brown-Forman	Tennessee Whisky	1,905	8.9
7	BAILEYS	Diageo	Liqueur	1,635	7.0
8	CHIVAS REGAL	Pernod Ricard	Scotch Whisky	1,600	4.0
9	BALLANTINE'S	Pernod Ricard	Scotch Whisky	1,230	5.6
10	CAPTAIN MORGAN	Diageo	Rum	1,165	7.3
11	J&B	Diageo	Scotch Whisky	1,145	5.9
12	CROWN ROYAL	Diageo	Canadian Whisky	1,125	4.6
13	GRANT'S	William Grant & Sons	Scotch Whisky	1,110	4.3
14	STOLICHNAYA	Soyuzplodimport	Vodka	1,090	14.0
15	REMY MARTIN	Remy Cointreau	Cognac	1,020	1.8
16	JINRO	Jinro	Soju	1,010	67.8
17	GREY GOOSE	Bacardi	Vodka	1,010	3.0
18	JAGERMEISTER	Mast-Jagermeister	Bitter	945	5.9
19	JOSE CUERVO	Grupo Tequila Cuervo	Tequila	925	6.6
20	JIM BEAM	Pernod Ricard	Anis	830	5.7
21	JIM BEAM	Beam Global	Bourbon Whisky	790	5.2
22	FAMOUS GROUSE	Highland Distillers	Scotch Whisky	730	2.9
23	YENI	Tekel	Raki	710	6.1
24	NEMIROFF	Nemiroff Vodka Co	Vodka	700	7.8
25	DEWAR'S	Bacardi	Scotch Whisky	690	3.4
26	GORDON'S	Diageo	Gin	685	5.2
27	TA KARA SHOCHU	Takara Shuzo Co	Shochu	665	11.3
28	BAGPIPER	The UB Group	Indian Whisky	665	13.0
29	PIRASSUNUNGAS	Muller de Bebidas	Cachaça	660	22.0
30	McDOWELL'S No 1	The UB Group	Indian Whisky	65	8.7

\* 위 자료의 순위는 총 판매가격 기준임

고급 증류주(premium Spirits)의 매출증가이다. 전 세계 주류소비자들은 점차 높은 품질의 주류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21세기에 들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 고급 증류주(프리미엄 증류주)의 판매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3%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프리미엄 보드카와 칵테일 베이스들의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4.6% 신장하였다.

2006년 프리미엄 증류주 판매신장의 일등공신은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이다. 미국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에서는 '페트론 테킬라(Patron Tequila)', '스베드카 보드카(Svedka Vodka)' 등이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였다. 페트론 테킬라와 스베드카 보드카의 경우 미국내에서 전년대비 50%이상의 신장을 기록하며, 2006년 가장 높은 매출신장을 기록한 프리미엄 증류주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증류주는 '스미노프(Smirnoff)', '바카디(Bacardi)', '조니워커(Johnnie Walker)', '엡솔루트(Absolut)', '잭 더니엘(Jack Daniels)', '캡틴 모건(Captain Morgan)', '베일리(Baileys)', '호세

쿠엘보(Jose Cuervo)', '예거마이스터(Jägermeister)' 순이었으며, 상위 10개 브랜드가 전체 증류주 판매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을 보면 '디아지오(Diageo)'가 상위 10개 프리미엄 증류주 중 무려 5개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증류주 업체임을 증명했다. 특히 디아지는 2006년 '스미노프(Smirnoff)' 보드카 2,300백만 상자(Liter)를 판매하여 1,900만 상자를 판매한 바카디(Bacardi)를 제치고 세계 프리미엄 증류주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스미노프 보드카는 우수한 품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매년 7% 이상의 높은 매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스미노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총 보드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위 보드카인 '엡솔루트(Absolut)' 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리고 있다.

스카치위스키 중에는 판매량이 전년대비 7.5% 신장, 총 1,400만 상자(Liter)를 판매한 디아지오의 '조니워커(Johnnie Walker)'가 수위를 차지했다. 조니워커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카치위스키 분야 판매 1위

#### 프리미엄증류주 매출신장을 상위 5개 브랜드

단위 : 백만상자×9 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주종	판매량		변화 05-06
				2005	2006	
1	PATRON	The Patron Spirits Co	Tequila	0.6	1.1	69.3%
2	SVEDKA	Spirits Marque One	Vodka	0.7	1.0	56.5%
3	PRESIDENTE	Pernod Ricard	Brandy	0.8	1.2	38.1%
4	RUSSIAN STANDARD	Russian Standard Co	Vodka	1.0	1.4	31.7%
5	GREY GOOSE	Bacardi	Vodka	2.3	3.0	30.5%
합계				5.5	7.6	39.5%

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스키치위스키 시장 중 하나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저가 스키치위스키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키치위스키는 그동안 중년층에서 주로 즐기는 주류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 스카치위스키를 즐기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스카치위스키 업계에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럼(Rum) 중에는 '캡틴 모르건(Captain Morgan)'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캡틴 모르건은 세계시장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세에 접어든 미국시장에 비해 타 국가에서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데킬라(Tequila) 중에서는 멕시코 '쿠엘보 그룹(Gupo Tequila Cuervo)'의 '호세 쿠엘보(Jose Cuervo)'가 세계시장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호세 쿠엘보는 자국인 멕시코에서는 매출신장이 정체되어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6년 5월부터 향이 가미된 데킬라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리큐르(Liqueur)에서는 디아지오의 '베일리(Baileys)'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칵테일 및 맛과향이 나는 주류가 유행하여 보드카, 럼 등의 칵테일베이스와 과일향

#### 세계 프리미엄 종류주 주종별 판매량

단위 :백만상자 × 9 Liter

주 종	판매량				변화
	2000	2005	2006	05~06	
WHISKY	85.0	93.9	96.2	2.4%	
	Scotch	50.1	57.4	58.6	2.1%
	Bourbon	12.1	14.4	15.2	5.5%
	Canadian	12.8	13.0	13.1	0.8%
	Japanese	3.7	3.1	3.0	-4.7%
	American Blended	2.8	2.4	2.4	-2.0%
	Irish	1.3	2.0	2.2	11.8%
Spanish	2.2	1.7	1.7	0.0%	
WHITE SPIRITS	100.8	126.8	135.4	6.7%	
	Vodka	39.6	55.2	60.7	10.0%
	Rum	36.5	44.3	45.7	3.1%
	Gin	15.9	16.3	16.7	2.4%
	Tequila	8.7	11.0	12.2	11.3%
SPECIALTIES	63.3	66.9	69.4	3.8%	
	Liqueurs	22.2	23.7	24.3	2.5%
	Brandy	19.2	18.9	20.1	5.8%
	Bitters/Aperitifs	12.7	15.4	16.5	7.0%
	Anis/Pastis	8.4	7.4	7.2	-2.6%
	Prepared Cocktails	0.9	1.4	1.4	-1.6%

\* 위자료의 순위는 총 판매액기준임

리큐르들이 인기를 끌었으며, 베일리와 같은 크림 리큐르 역시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베일리는 최근 민트초콜릿과 캐러멜향이 가미된 크림 리큐르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베일리는 주력시장인 영국과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리큐르 시장인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06년 베일리는 일본에서 전년대비 두 배의 매출을 올렸다.

2007년 중류주 시장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을 중심으로 중류주의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06년과 마찬가지로 고급주류의 매출신장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전망에 따라 디아지오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공장신설 및 기존공장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